



## 백제의 슬픈 전설이 깃든 백제인동마을 “거전리”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는 대전에서 약1시간 거리에 있다.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40분 이내로 소요시간이 줄어든다. 현재는 대전에서 논산을 거쳐 가는 방법과 공주를 거쳐 가는 방법이 있다. 거전리는 칠갑산에서 발원한 백마강이 아흔아홉 굽을 구비 돌아 마을 앞을 시원스레 흐르는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산을 배경으로 작은 세 부락이 합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거전리는 충청도 두메산골로서 다량이 논과 산비탈 밭 그리고

밤나무 산지를 기반으로 열심히 마을을 가꾸어 가고 있다.

거전리는 논320ha, 밭30ha, 산430ha로 논과 밭보다는 산을 배경으로 주 소득을 내고 있다. 특히 밤의 주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밤은 역사적으로 낙랑시대 무덤에서 처음 발견되어 약 2000년 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밤은 약 100만톤이 생산되고, 이 중 중국이 60%, 한국이 1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여군의 밤 생

산은 4,563ha에 8,765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거전리에서 생산하는 것은 1년에 약 1,200톤정도이다. 거전리에서는 밤 작목반을 구성하여 공동보관, 공동출하, 공동정산을 통해 비교적 높은 가격에 밤을 출하하고 있다.

또한 도농직교류를 통해 중간 마진 없이 도시의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밤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 거전리 밤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여 크기 별, 무게별 자동선별을 하고 있으며, 세척, 질소소독을 한 후 영하 2℃로 보관해 일년 내내 출하가 가능하여 높은 가격으로 출하

할 수가 있다.

거전리는 도농직거래를 통해 도시민의 마을방문이 잦아져 2004년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회관 신축, 마을환경정비 등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었다.

마을부녀회에서는 마을공동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마을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농산물 판매와 각종체험프로그램 참가비 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일사일촌 운동의 일환으로 거전리는 한국인포데이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 부녀회 등과 자매결연하여 농촌체험과 농촌 일손돕기, 직거래장터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소개, 이메일을 통한 농산물 주문접수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마을 특산물인 밤을 이용해 실시하는 밤줍기 행사는 도시민이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주고, 재미있는 농촌체험과 밤까지 사가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밤뿐 아니라 다른 발작물까지 동시에 사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마을에 있는 구 거전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지금은 백제문화전승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학생야영장, 사비미술 체험학습장, 백제문화전승교육관으로 나누어 사용되며, 학생야영장은 부지 2,729평에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숙박과 수련활동 편

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비미술체험학습장은 2002년 1억3,500만원을 들여 1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백제토기 만들기 체험학습을 통하여 백제 전통문화를 이해 계승하는 목적으로 개설 되었다. 백제문화전승교육관은 2004년 1억1천만원을 들여 모형박물관을 만들어 유구한 역사와 함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찬란했던 백제문화 및 백제 얼에 대하여 탐구하고 몸소 체험하게 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마을에는 KBS '6시 내고향' 백년가약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산채공동작업장과 체험장이 건립되어 지리적으로 세 곳으로 나누어진 마을의 공동발전 숙원을 풀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마을을





▣ 산채공동작업장 및 체험장

홍보하는데 일조 하였다.

거전리에는 특히 세 가지의 유명한 식물이 있는데 인동초, 맥문동, 원추리가 있다. 이 중 인동초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고 선비의 절개를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약재와 향수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인동초는 풀이 아닌 등나무과의 일종으로 3-4m의 덩굴줄기가 원편으로 꼬이면서 자라는 특성과 함께 한겨울 북풍한설에도 잎이 지지 않는다 해서 인동초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거전리에서는 인동초를 주 원료로 하여 인동주를 만들고 있으며, 인동잎을 원료로 한 인동차, 꽃을 이용한 인동한방차와 인동한과 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여 거전리는 백제인동마을이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식물인 맥문동은 백합목 백합

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굵은 뿌리줄기에서 잎이 모여 나와서 포기를 형성하고, 흔히 뿌리 끝이 커져서 땅콩같이 된다. 덩이뿌리를 소염·강장·진해·거담제 및 강심제로 사용한다. 맥문동은 기침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삭히며 열을 내리는데도 뛰어난 약효가 있다고 한다. 맥문동은 여러 가지 약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전리에는 지금 원추리가 한창이다. 한겨울에 비닐하우스에 원추리를 심어 봄에는 원추리나물을 먹을 수 있다. 원추리는 '근심을 잊게 하는 풀'로 널리 알려진 약초이다. 한자로는 흰초, 망우초, 금침채, 의남초 등으로 쓰며 어린 싹을 나물로도 즐겨 먹는다. 우리말로는 원추리를 넘나물이라고 하

여 봄철에는 어린 싹을, 여름철에는 꽃을 따서 김치를 담가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다. 이 밖에도 원추리는 폐결핵, 빈혈, 황달, 변비, 소변불통 등에 치료약으로 쓴다. 뿌리를 달인 물은 결핵균을 죽이는 효능이 있고 전초에 이노작용, 항염작용, 지혈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원추리에 대한 백제 역사의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삼국시대 사비성의 구드레 나무 건너 평화로운 산골마을에 효성이 지극하고 의좋은 형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평화로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는 나라를 구하고자 창칼을 잡고 전쟁에 나가 황산벌에서 장렬히 전사 하였는데,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효성이 지극한 두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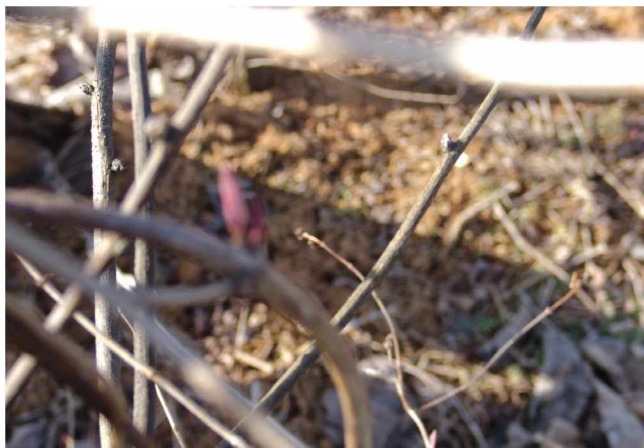
는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상심해서 몸져 눕게 되었다. 상심해 얻은 병은 어떠한 약을 써도 낫지 않고, 병은 깊어만 갔다. 어느 날 밤 두 아들의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 손에 원추리 꽃을 들고, 이 꽃을 달여 마시고 근심을 잊고 힘을 얻어 백제의 부흥을 기약하라 하였고, 두 아들은 원추리 꽃을 달여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다. 그 후 사람들은 원추리 꽃을 일컬어 근심을 잃게 하는 꽃이라 하여 망우초라 불렀다 한다. 이렇듯 원추리는 오랜 세월동안 이 마을과 함께 약재로, 식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거전리는 야생화와 산나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거전리의 수려한 자연조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마을 앞 하천은 백마강의 상류이다.

칠갑산에서부터 흐르는 깨끗한 물의 자연형 하천으로 여름에는 뗏목을 타고, 물고기를 잡으며, 물놀이를 할 수 있다.

거전에서 할 수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봄 - 산나물 채취, 봄 야생화 관찰, 전통차(인동차, 감잎차, 뽕잎차) 만들기



인동초



맥문동



원추리

- 여름 - 원추리 꽃 축제, 생태하천 관찰, 물고기 잡기, 야생화관찰
- 가을 - 알밤줍기, 야생화 관찰
- 겨울 - 정월대보름축제, 썰매타기, 연날리기

시켜 보다 풍부한 체험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마을과 부여군교육청이 협조하여 마을과 백제문화전승교육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 관리 측면에

또한 백제문화전승교육관과 관련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마을 인근에 50ha에 이르는 매우 큰 생태숲도 조성 될 예정이다. 그러나 백제인동마을 거전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부여군이 가지고 있는 백제역사문화와 충남의 알프스라는 칠갑산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태문화 숲 해설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또한 거전리는 전형적인 산촌마을답게 산에서 제공되는 풍부한 임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거전리는 마을과 백제문화전승교육관을 연계



마을 앞 하천(백마강 상류)

서 효율적일 것이다. 앞서 보았던 경기도 양평 명달리 산촌마을이 시민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발전 했다면 이곳 백제인동마을 거

전리는 마을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앞서가는 산촌마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연락처

백제인동마을 이 장 김광환 011-212-6487 | 신지식임업인 김은환 016-434-7363  
www.greentour.or.kr : 백제인동



사비미술체험학습장 - 도자기 가마실



백제문화전승교육관-백제 토기코너